

“불자장군 죽이기 중단하라”

조계종 종교편향위 김태복소장 기소취소 요구 조직적 불교탄압 간주... 국방장관 퇴진운동 검토

종교편향 의혹이 제기된 온 불자 장군 김태복 소장(前국방부불자회 총무) 기소와 관련, 군 고위층에서 크리스천이 아니면 군수뇌부가 될 수 없음을 물론 진급 조차 어렵다는 항간의 소문이 개인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현진)는 7일 '101여단 군법당 건립 지휘관 김태복 소장 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부대를 방불케 하는 101여단(교회 8곳, 성당 1곳, 군법당은 호국백일사 1곳) 소속 참모장관 등 모 대령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군인들의 조직적인 불교탄압 및 무고사건일 의혹이 짙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포교부장 현진소장은 "21일까지 국방부의 남독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교협회 행

위에 대해 불교계 차원에서 국방장관 퇴진 요구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 급단사 주지 천오승에 따르면 전종적으로 개신교세가 강한 101여단은 인근 사찰인 급단사 경내에서 식사중인 장병들을 불러내 일처리를 주고, 민통선내에 위치한 급단사를 왕래하는 신도들을 고의(비상이 걸렸다는등)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101여단내 호국백일사에서 조상에 대한 합동차례도 우상숭배라며 방해할 정도로 종교편향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모함성 제보를 일삼는 전 101여단 참모장 황 모 대령은 교회 장로로서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육본 교구 장성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김 장관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복장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진각복지재단 출범 1년 복지시설 8곳 운영 '모범'

진각종이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을 설립한 이래 1년동안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복지시설을 수탁하고 실직자 자녀를 위한 '선재의 집'을 개설하는 등 모두 8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복지종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진각복지재단은 지난달말 관악구로부터 양재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데 이어 서울시로부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수탁받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다. 이로써 진각복지재단은 이들 세 곳을 포함해 종로구 구

“동강댐 백지화” 촉구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위원장 성조)는 6일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며 33인의 각계인사들이 33일째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을 지지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성조소장(조계종 사회부장)은 "생명의 중요성을 주지하며 문화와 환경을 지키는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불교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앞서 사찰환경보존위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 사찰환경보존위는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등 일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연의 파괴를 앞둔다면 후손들에게 부끄러움과 질타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뉴스 & 뉴스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종단산하 사회복지관 종사자 1백20명을 대상으로 2~3일, 9~10일 두차례에 걸쳐 1박2일간 강원도 원주 구룡사 인근 자연학습원에서 연수회를 개최했다.

종사자들의 심신교체를 통한 불교 사회복지 구현 등을 목적으로 한 이번 연수회는 이정호교수(국립보건의원)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한 초청특강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임상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조립식 군법당 호국월문사

육군 7군단 7포병여단은 14일 오후 2시 조립식 군법당 표준모델 1호인 호국월문사 법당 기공식을 거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의 법당 건립지원비 8천여만원으로 건립되는 월문사 군법당은 지난해부터 군승당시 실용적이면서 값싼 군법당 표준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5백여만원의 설계비를 들여 만들어진 모델. 80여평의 면적에 쾌적하면서도 장엄한 법당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정신보건센터 운영

동국대 의과대학 포항병원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북도가 지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국대와 포항시는 지난 7일 KBS 포항방송국에서 동국대 포항병원을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는 것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동국대 포항병원은 정부로부터 6천7백30만원을 지원받아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보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관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에 의해 정신보건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포항시가 더 나은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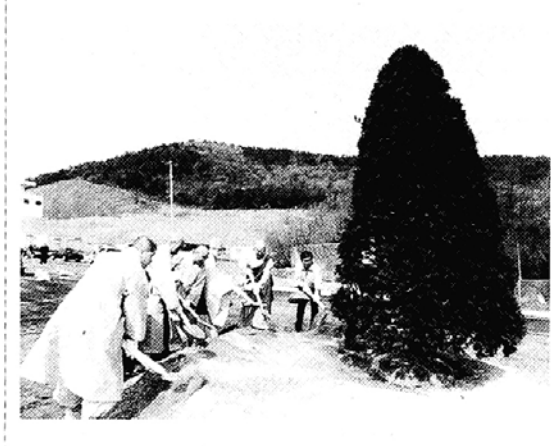
동국대 소비자상담실 개설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소비자학연구팀은 3월30일 교내 계산관 2층에 소비자상담실(실장 박명희)을 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상담에 들어갔다.

상담실에서는 소비자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중구지역 내 물가지수 및 현장 조사 제품가격 비교 및 품질비교정보제공 각 소비자단체 및 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상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이메일 상담도 실시한다. (02)2260-3057, 3414
http://dgucc.dongguk.ac.kr/~mhpark
http://dgucc.dongguk.ac.kr/~sobija/

강지연 기자



전국 사찰-단체 나무심기 동참

식목일을 맞아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이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4일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총무원 1백여명이 참가해 중앙승가대 김포화사에 향나무 등을 심었다(사진).

전대종은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서울 화계사와 천중사, 파주 보광사, 화성 신홍사 등도 각각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정성운 기자

영국 여왕 봉정사 참배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21일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를 방문한다.

이날 낮 12시45분 봉정사에 도착할 예정인 여왕은 대웅전 참배, 범종루와 누각 관람 등을 거쳐 오후 1시 15분에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칠 것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누각 관람시에는 스님의 법고 시연이 있을 예정이다.

682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봉정사에는 부처사 무량수전과 더불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간물인 극락전(국보 제15호), 대웅전(보물 제55호),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당당(보물 제449호)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영호남 청년불자 '화합의 장' 연다

25일 광주시민회관 영·호남 청년불자 5백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대불청 광주지구(회장 이주성)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민회관에서 철옹대선사초청 영·호남 청년불자교류법회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제4기 귀농학교 개교 실상사등서 24일~5월말

불교귀농학교(학교장 도법)는 4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과 실상사에서 제4기 불교귀농학교를 연다.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실시될 이론강의는 매주 토·일요일 진행된다. (보물 제448호), 고당당(보물 제449호) 등이 있다.

김주일 기자

장애인 자원봉사 교육 원심회, 28일·5월1일

조계사 장애인포교회 원심회(회장 덕신)는 28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원심회 교육실에서 장애인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특징,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내용 소개 및 접차도서 등에 대한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홍보 및 교육 시간은 28일은 오후 7시, 5월1일은 오후 3시다. (02)720-4528

한명우 기자

“스님을 개종”으로 모독하다니...

미주불자들이 워싱턴 조선일보에 강력 항의

〈조선일보 워싱턴〉 4월 5일자에 게재된 '월요일'이란 코너에 스님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찬 '개종'이란 시가 게재돼 미주 불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 모씨 명의로 발표된 이 시에는 "당신네들은 불을 타고 흘러온 시냇물을 바가지로 떠 마셨는가? 안 마셨지, 양주 마시고 커피로 입가심했지. 그것이 문제네.

도 밝히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를 게재한 것은 의도적인 취재행위 아니냐는 여론이 미주 불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 지사장이 워싱턴에서 가장 큰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도 이런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워싱턴의 한 불자는 "불자로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를 감할 수 없다. 조계종 본규의 상처가 아물어 가는 이 때에 뒤늦게 이런 식으로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이 유가 원지 납득이 안간다"면서 "만약 '개종사'이란 시를 보내면 신문사가 이를 게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호

지상중계 계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전리담(9)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 불교적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전단(9) / 불교계 승·제가 인재양성본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본부제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제가 인재양성본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건으로 보는 성보기행(9) / '99년속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 싶은 절, 부처사.
부처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 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정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처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비교

특집 / 회암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주는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들 찾아서 학술원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규 김명익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명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와 빛나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강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조(창과 문) 장인, 심홍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강진,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창환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가사 보리국사비 복원기
사명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는 총합적인(1998.12 - 1999.3)

불교문화학 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아모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대체의학의 혁명 공개

우리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있다.

모든 짐승은 자기 성장 과정의 10배 이상 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1년안에 다 성장하여 15년을, 거북이는 100년을 성장하여 1500년을 산다. 우리 인간도 다같은 동물이며, 그렇게 살 수 있다. 인간은 20세까지 성장하니까 10배면 따라서 200세 이상이 천수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성장과정의 10배는 커녕 5배 이상도 살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짐승들보다 뇌가 1개 더 있다. 대뇌라는 정신총계 전자오락 기계의 기관과 같은 정보시스템이 뇌에 자극을 주어 내인(內因)의 병인, 암·당뇨·중풍·협심증·심근경색증등 불치병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짐승에게는 이런 병이 없다. 또 외인(外因)의 병에 대한 저항력부족의 원인으로 병에 걸린다.

정신적인 내인의 병(노·사·비·경·공·우), 외인의 병(풍·한·서·습·조·열·타박상·전염병) 이렇게 두가지 내인과 외인의 조절을 잘못하여 병으로 발전하며 실증과 허증으로 몸에 전이되어 오장육부에 같이 병든다.

모든 병 치료에 앞서 내인의 병은 마음을 다스리고 약을 써야 하며, 외인의 병은 생활환경에 균형된 온·도 조절 정결이 필요하며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식생활에서도 몸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실증이면 운동량을 많이 하고 힘을 빼주고 허증이면 운동량을 많이하여 힘을 빼면 몸을 더욱 해치게 된다.

실증과 허증으로 병이 발전하면 오장 육부가 상생 상극에 에너지 공급 순환의 조화가 깨지고 곧 병으로 크게 발전하며 어떠한 부위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이는 오장 육부가 자기병을 고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치로 보면 된다.

실증은 화나는 일로 피가 열받아 삼초경이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열이 많으며 견비통, 요통, 복창이 오며 입맛은 좋고 여자는 멘스가 빠르다. 허증은 기운이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 동통을 하며 요통 4·5번이 협착되고 어깨통증, 양기부족, 뒤가 무거운 후증기가 오고 입맛이 없고 여자는 멘스가 느리다. 이러한 증상은 원인치료가 되어 통증이 사라지고 협착 부위가 퍼진다. 아무리 통증부위 치료를 해도 일시방편이며 원인치료는 안된다. 암·당뇨·중풍 치료법, 얼굴보고 진찰, 견진법, 오운육기, 한의약 종합편, 소림복권, 내공일지선법, 자기 스스로 치료 자발기공법, 백화타동 타인에게 발공치료법, 교육후 수료증, 지부설립 할 수 있습니다.

운암한의학 연구학회 사단 법인 키와 기공협회 TEL 2238-4038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의학 무료공개강좌 H·P : 016-221-2250
위치 : 신설동 마사회 골목 미림식당 앞 오성빌딩 201호